

# 李白 <贈>詩 譯解 (4)

— 제17수에서 제21수까지

조 득 창\* · 조 성 천\*\*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17수 비서성 저작량 위자춘에게 드림
  - 2.2 제18수 시어사 위황상에게 드림 2수(제1수)
  - 2.3 제19수 시어사 위황상에게 드림 2수(제2수)
  - 2.4 제20수 교서량 설씨에게 드림
  - 2.5 제21수 판관 하창호에게 드림
3. 결론

##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산일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축본 《이태백문집》은 ‘古風’ 59수,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 ‘寄’, ‘別’, ‘酬答’, ‘遊宴’, ‘登覽’, ‘行役’, ‘懷古’, ‘閑適’, ‘懷思’, ‘感遇’, ‘寫懷’, ‘詠物’, ‘題詠’, ‘雜詠’, ‘閨情’, ‘哀傷’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

\* 협성대 부교수

\*\* 을지대 조교수(교신저자 sczhao@hanmail.net)

集注》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축본 《이태백문집》 제 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실고 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 할 바, 생각한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 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과의 관계 및 교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 된다. 본고는 이백의 ‘贈詩’에 대한 역해작업의 일환으로 제17, 18, 19, 20, 21수 총5수를 역해의 대상으로 삼았다.<sup>1)</sup>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原文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였으며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直譯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意譯을 하였으며 시적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국내외 역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번역 및 자구 풀이의 異同 및 차이 등을 검토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제고하였다. 이것은 국내역해본과 차별되는 점이다. 校勘은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본고가 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역해논문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1) ‘贈詩’의 역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李白 <贈>詩 譯解(1)>(《中國學論叢》 제48집 (2015.5.30.)), <李白 <贈>詩 譯解(2)>(《中國語文論叢》 제69집 (2015.6.30.)), <李白 <贈>詩 譯解(3)>(《中國文化研究》 제29집(2015.8.30.))

## 2. 본론

2.1 제17수 비서성 저작랑 위자춘에게 드림(贈韋秘書子春)<sup>2)</sup>

谷口鄭子眞,	정자진은 정곡에 은거하며
躬耕在巖石. <sup>3)</sup>	바위 아래에서 몸소 농사짓고 살았네.
高名動京師,	높은 명성 온 도성을 진동하고
天下皆藉藉. <sup>4)</sup>	천하에서 모두 칭찬이 자자했네.
其人竟不起,	이 사람은 끝내 일어나 나오질 않았으니
雲臥從所適. <sup>5)</sup>	구름 속에 누워 마음 원하는 바를 따랐네.
苟無濟代心, <sup>6)</sup>	세상 구제할 마음이 없다면

- 2) 韋秘書子春: 秘書省 著作郎 韋子春을 말함. 《舊唐書·玄宗紀下》의 天寶8년(749)에 “여름 4월, 咸寧縣(역주: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의 太守인 趙奉璋이 곤장형의 판결을 받아 맞아죽고 저작랑 韋子春은 端溪縣(역주: 지금의 廣東省 郁南縣)尉로 폼직되었는데 李林甫가 그들을 모함하였다(夏四月, 咸寧太守趙奉璋決杖而死, 著作郎韋子春貶端溪尉, 李林甫陷之也)”라는 기록이 있다. ○ 秘書省 著作郎: 비서성의 佐郎과 더불어 碑誌, 祝文, 祭文 등을 편찬하였다. ○ 安史의 亂에 韋子春은 永王 李璣를 도운 참모 가운데 하나이다. 《新唐書·李璣傳》에 다음 내용이 있다. “李璣이 궁궐에서 태어나 여러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薛鏐·李台卿·韋子春·劉巨鱗·蔡駟이 謀主가 되었다.(璣生宮中, 於事不通曉, ……以薛鏐·李台卿·韋子春·劉巨鱗·蔡駟爲謀主.)”
- 3) “谷口鄭子眞, 躬耕在巖石”二句: 鄭子眞에 대한 전고이다. 《漢書·王吉傳》에 다음 내용이 있다. “그 뒤, 谷口에 鄭子眞이 있고, 蜀에 嚴君平이 있었는데 모두 수신하고 자중하여 입지 않을 것은 입지 않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았다. 漢의 成帝가 재위에 있을 때 元舅로서 大將軍인 王鳳이 예를 갖추어 정자진을 초빙하였으나 정자진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죽었다.……揚雄이 책을 지어 당대의 선비들을 언급할 때 이 두 사람을 칭찬하였다. 谷口の 鄭子眞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바위 아래에서 농사지며 은거하니 명성이 온 도성에 진동하였다.(其後谷口有鄭子眞, 蜀有嚴君平, 皆修身自保, 非其服弗服, 非其食弗食. 成帝時, 元舅大將軍王鳳以禮聘子眞, 子眞遂不諛而終, ……及(揚)雄著書言當世士, 稱此二人. ……谷口鄭子眞不諛其志, 耕於巖石之下, 名震京師.)” 皇甫謐의 《高士傳》 卷中에도 鄭子眞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다. ○ 谷口: 漢代의 縣 이름. 지금의 陝西省 咸陽市 禮泉縣 東北에 있는데 箕谷의 남쪽 입구에 해당하고 涇水가 산에서 나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렀다. 谷口耕은 역대로 은거생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4) 藉藉: 명성이 매우 성대한 모습을 형용함.
- 5) 雲臥: 구름 속에 눕다. 은거의 의미임.
- 6) 濟代心: 세상을 구제하고자하는 마음. 唐 太宗의 이름인 李世民에서 ‘世’를 피휘하고자 ‘代’라고 씀.

獨善亦何益. <sup>7)</sup>	홀로 자신을 수양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惟君家世者,	그대 가문 선대는
偃息逢休明. <sup>8)</sup>	태평성대를 맞아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였네.
談天信浩蕩, <sup>9)</sup>	그대 하늘을 담론하면 정말 심오하며 광대하고
說劍紛縱橫. <sup>10)</sup>	검술을 말하면 이리저리 중횡무진이네.
謝公不徒然,	謝安이 공언히 東山에 은거하지 않았으니
起來爲蒼生. <sup>11)</sup>	마침내 백성을 위해 일어나 나왔다네.
秘書何寂寂,	그대는 어찌 그리 적막한 한직에 있는지
無乃羈豪英. <sup>12)</sup>	영웅호걸을 재갈물린 것 아니겠는가?

- 7) 獨善: 뜻을 얻지 못했을 때 홀로 자신을 선하게 수양함. 이 말은 《孟子·盡心上》에 나온다.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홀로 자신을 선하게 닦고, 뜻을 얻었을 때는 아울러 천하를 선하게 한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 8) “惟君家世者, 偃息逢休明”二句: 韋子春의 부친, 조부가 태평성대를 만났지만 출사하지 않고 은거한 것을 말한다. “惟君家世者”에서 ‘惟’에 대해 郁賢皓·詹福瑞 등은 뜻이 없는 문두조 사로 보았다. ‘家世者’를 韋子春 가문의 선대로 해석하였다. 郁賢皓는 두 구를 “그대 집안 몇 대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만나, 고관훈장이 있었지만 쉬었네”라고 하였다.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서울: 學古房, 2015)에서는 “생각건대 그대는 유서깊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평성대를 맞아 평안히 누워계시면서”라고 하였다. ‘惟’를 ‘생각하다’, ‘家世者’를 유서 깊은 집안의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 偃息: ‘安臥’, 즉 은거하다. ○ 休明: 정치가 청명함을 말한다.
- 9) “談天信浩蕩”句: 이 구는 鄒衍의 고사를 들어 韋子春의 천문지리에 대한 지식이 심오하고 넓어 天地에 대한 논변이 뛰어난을 말한다. 《史記·孟子荀卿列傳》에는 鄒衍이 하늘에 대해 논변을 잘한 내용을 “때문에 齊나라 사람이 칭송하여 ‘하늘을 논하는 鄒衍…’(故齊人頌曰: 談天衍…)”이라 묘사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鄒衍談天”은 논변을 잘함을 비유한다. 裴駟 《集解》에서는 劉向 《別錄》의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추언이 말한 바는 五德(역주: 土·木·金·火·水)이 시작과 끝남의 순환운동을 하고, 천지는 광대하다는 것이니 하늘의 일을 극진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논하였다고 한 것이다.(鄒衍之所言, 五德終始, 天地廣大, 盡言天事, 故曰談天.)” ○ 浩蕩: 아주 넓어서 끝이 없음.
- 10) “說劍紛縱橫”句: 이 구는 《莊子·說劍》의 고사를 들어 위자춘의 무예에 대한 논변이 뛰어난을 말한다. 《莊子·說劍》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저에게는 세 자루의 검이 있는데, 오직 임금의 뜻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 ‘왕이 세 자루 검에 대해서 듣고 싶소’하니, (장자는) ‘천자의 검이 있고, 제후의 검이 있고, 서인의 검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臣有三劍, 唯王所用. …… 王曰: ‘願聞三劍.’ 曰: ‘有天子劍, 有諸侯劍, 有庶人劍.’)”
- 11) “謝公不徒然, 起來爲蒼生.”二句: 《晉書·謝安傳》에 “征西大將軍 桓溫이 謝安을 불러 司馬로 삼았는데, 그가 新亭을 떠나려할 적에 조정의 관원 모두가 전송하였다. 이때 中丞인 高崧이 그를 놀리며 말하기를 ‘그대는 여러 차례 조정의 뜻을 위배하고 東山에 은거하며 벼슬하지 않으려 하였기에 여러 사람들이 매번 서로 말을 하며 사안이 나오려 하지 않으니, 장차 백성들을 어찌할 것인가? 백성들은 지금 또한 그대를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征西大將軍桓溫請爲司馬, 將發新亭, 朝市咸送, 中丞高崧戲之曰: ‘卿屢違朝旨, 高臥東山, 諸人每相與言, 安石不肯出, 將如蒼生何? 蒼生今亦將如卿何?’)”라는 전고가 있다.
- 12) “秘書何寂寂, 無乃羈豪英”二句: 이 두 구는 韋子春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한직에 매여 있음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朱諫은 “秘書는 관직 이름으로 관직이 낮고 녹봉이 박하다(秘書,

且復歸碧山,	그러다 다시 푸른 산으로 돌아와 은거하니
安能戀金闕. <sup>13)</sup>	어찌 궁궐을 더 이상 연연해 할 수 있었으리오?
舊宅樵漁池, <sup>14)</sup>	옛 집은 나무하고 고기를 잡던 곳인데
蓬蒿已應沒,	숙대로 이미 뒤덮였네.
卻顧女几峯, <sup>15)</sup>	다시 여계봉을 바라보았으니
胡顏見雲月. <sup>16)</sup>	무슨 낯으로 옛 산의 구름과 달을 볼 수 있겠는가?
徒爲風塵苦,	괜히 세속풍진에 고달파하고
一官已白鬚.	미관말직 한 번에 벌써 백발 되었구나.
氣同萬里合,	서로 의기가 같아 만 리나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었기에
訪我來瓊都. <sup>17)</sup>	그대가 나를 방문하여 여산에 왔지.
披雲睹青天,	구름 헤치고 푸른 하늘 보듯한 깨달음 느끼며
捫虱話良圖. <sup>18)</sup>	격의 없이 훌륭한 계획들을 말하였지.

官名, 官卑而祿薄者)라고 주석을 달았다. ○ 秘書: 韋子春을 의미한다. ○ 寂寂: 냉대 받아 쓸쓸한 모습. ○ 無乃: 완곡하게 반문을 나타낸다. 어찌 아니겠는가? 여기에서는 韋子春에 대한 동정, 애석의 어감을 나타낸다. 詹福瑞는 두 구를 “韋秘書 그대는 왜 고요하게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가? 왜 자기의 영웅스런 풍모와 호기를 구속하려하는가?”라고 해석하였다.

- 13) “且復歸碧山, 安能戀金闕”二句: 위자춘이 궁궐을 연연해하지 않고 미관말직을 버리고 은거한 것을 말한다.
- 14) 舊宅: 이전에 은거한 곳을 말한다.
- 15) 女几峯: 산 이름이다. 《元和郡縣志》卷5의 河南道福昌縣에서 “女几峰은 縣의 서남쪽 34리에 있다(女几峰, 在縣西南三十四里)”라고 하였다. 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宜陽縣 서남부에 있다.
- 16) 胡顏: 무슨 낯이 있으리오.
- 17) “氣同萬里合, 訪我來瓊都”二句: 이 두 구는 위자춘이 廬山으로 이백을 방문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하라 권면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 瓊都: 京都의 의미. 郭沫若은 《李白與杜甫》에서 “瓊都是 바로 廬山이다(瓊都就是廬山)”라고 하였다.
- 18) “披雲睹青天, 捫虱話良圖”二句: ○ “披雲睹青天”句는 韋子春의 말에 시인이 크게 깨닫게 되어, 마치 운무가 걷히어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世說新語·賞譽》에 “衛伯玉이 尙書令에 임명되었을 때 樂廣이 西晉의 名士와 청담하는 것을 보고서 보통이 아니라고 여기고서 말하기를 ‘옛날부터 여러 명사들이 세상을 떠난 이래로 지금까지 淸談이 끊어질까 항상 걱정하였는데, 지금 다시 그에게서 이러한 청담을 듣는구려!’라고 하였다. 이에 즉시 자제에게 樂廣을 찾아가라 명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람들의 거울이니 그를 보면 마치 운무를 밀어 제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衛伯玉爲尙書令, 見樂廣與中朝名士談議, 奇之曰: ‘自昔諸人沒已來, 常恐微言將絕, 今乃復聞斯言於君矣!’ 命子弟造之, 曰: ‘此人, 人之水鏡也, 見之若披雲霧睹青天)’라는 전고가 있다. ○ “捫虱話良圖”句: 《晉書·王猛傳》의 王猛이 桓溫을 만나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으로 이백이 위자춘과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담론한 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晉書·王猛傳》에 보이는 내용이다. 前秦의 王猛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 東晉의 大將 桓溫이 병사를 이끌고 關中에 들어왔을 때, 王猛은 그를 알현하러 가서 한편으로는 허심탄회하게 천하의 일을 논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잡으니 마치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하였다. 桓溫이

留侯將綺季, 19)

장양이 상산사호를 나오게 이끌었으니

그를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역도를 토벌하러 왔는데 “關中일대의 호걸들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而三秦豪傑未有至者何也)?”라고 묻자, 王猛이 그대는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왔지만 “장안이 지척이지만 패수를 건너지 않아(長安咫尺而不渡灞水)” 백성들이 아직 그대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桓溫이 이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는 “捫蝨”로써 말이나 행동에 구속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것을 형용하였다.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에서는 두 구를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이를 잡으며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 19) “留侯將綺季”句: 《史記·留侯世家》의 商山四皓의 한 명인 綺里季를 전고로 하고 있다. 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 商山四皓(東園公(唐宣明)·角里公(周術)·邯鄲公(綺里季)·夏黃公(崔黃))를 초빙하였으나 이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숨었다. 한고조는 본부인 呂后가 낳은 큰아들 劉盈을 태자로 책봉하고, 첩실 戚부인이 낳은 如意를 趙王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명은 천성이 나약하고 재주가 평범한 반면 여의는 재주가 총명하고 학문도 출중하였으며 척부인 또한 자신의 소생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는 욕망이 강하였다. 이에 한고조가 태자를 바꾸려고 하였다. 呂后는 이 풍문을 듣고 張良과 대책을 마련하여 그의 묘책에 따라 연회에 상산사호를 초청하여 상산사호가 태자를 보좌하는 날개가 되겠다고 함으로써 한고조는 태자를 바꾸려는 생각을 거두었다. 이로써 유명이 제위를 계승하니, 그가 한의 2대 황제 惠帝(서기전 194-188)이다. 《史記·留侯世家》에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漢 12년, 황제가 경포의 군사를 격파하고 돌아와서 병이 더욱 심해지자 더더욱 태자를 바꾸고자 하였다. 이에 留侯(역주: 張良)가 그만두기를 간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자, 병을 핑계로 공무를 돌보지 않았다. 태자태부 숙순통이 고금의 일을 인용하여 설득하여 죽을 각오로 태자를 보위하기 위해서 애썼다. 황제는 거짓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연회에 술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태자가 황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네 사람의 은자가 태자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80이 넘었고 수염과 눈썹이 희었으며 의관은 매우 위엄이 있었다. 황제가 괴이하게 여겨 묻기를 ‘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자, 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여 각각 이름을 말하기를 東園公·角里先生·綺里季·夏黃公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크게 놀라며 ‘짐이 공들을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는데, 공들은 기어이 짐을 피해 도망가더니, 이제 공들이 어찌하여 스스로 내 아들을 따라 노니는가?’라고 하였다. 네 사람 모두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선비를 업신여기시고 잘 꾸짖으시므로 신들의 의(義)에 욕되지나 않을까 하여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듣건대, 태자께서는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러우시며 사람을 공경하고 선비를 사랑하시어 천하에 목을 빼고 태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므로 신들이 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에 이르기를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들께서 끝까지 태자를 잘 돌보아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다. 네 사람이 祝壽를 마치고 급히 떠나가자, 황제는 눈길로 그들을 전송해 보내면서 척부인을 불러 그 네 사람을 가리켜 보이며 이르기를 ‘짐이 태자를 바꾸고자 하였으나 저 네 사람이 보좌하여 태자의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지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소. 여후는 진정으로 그대의 주인이오’라고 하였다. 척부인이 흐느끼자 황제는 ‘짐을 위해서 초나라 춤을 춰 보여 주오. 짐도 부인을 위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리다’라고 하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큰 고니 높이 높이 날아, 한 번에 천 리를 날거니, 날개가 어느덧 다 자라나매, 온 천하를 마음껏 날아다니도다. 온 천하를 마음껏 날아다니니, 마땅히 또 어떻게 하였는가! 설령 주살이 있다고 한들, 오히려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몇 번 언달아 노래를 부르며 척부인은 한숨을 내쉬

出處未云殊.	출사와 은거의 뜻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네.
終與安社稷,	결국에는 더불어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함이었으니
功成去五湖. <sup>20)</sup>	공을 이루고서는 五湖로 떠나갔네.

## &lt;校記&gt;

이 시는 蕭本<sup>21)</sup> · 玉本<sup>22)</sup> · 郭本<sup>23)</sup> · 朱本<sup>24)</sup>에서는 모두 두 수로 되어 있는

며 눈물을 흘렸다. 황제가 일어나 자리를 뜨자, 술자리는 끝이 났다. 결국 태자를 바꾸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유후가 이 네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漢十二年, 上從擊破布軍歸, 疾益甚, 愈欲易太子. 留侯諫, 不聽, 因疾不視事. 叔孫太傅稱說引古今, 以死爭太子. 上詳許之, 猶欲易之. 及燕, 置酒, 太子侍. 四人從太子, 年皆八十有餘, 鬚眉皓白, 衣冠甚偉. 上怪之, 問曰: '彼何爲者?' 四人前對, 各言名姓, 曰東園公, 角里先生, 綺里季, 夏黃公. 上乃大驚, 曰: '吾求公數歲, 公辟逃我, 今公何自從吾兒遊乎?' 四人皆曰: '陛下輕士善罵, 臣等義不受辱, 故恐而亡匿. 竊聞太子爲人仁孝, 恭敬愛士, 天下莫不延頸欲爲太子死者, 故臣等來耳.' 上曰: '煩公幸卒調護太子.' 四人爲壽已畢, 趨去. 上目送之, 召戚夫人指示四人者曰: '我欲易之, 彼四人輔之, 羽翼已成, 難動矣. 呂后眞而主矣.' 戚夫人泣, 上曰: '爲我楚舞, 吾爲若楚歌.' 歌曰: '鴻鵠高飛, 一舉千里, 羽翮已就, 橫絕四海. 橫絕四海, 當可奈何! 雖有煇燄, 尙安所施!' 歌數闋, 戚夫人嗷啼流涕, 上起去, 罷酒. 竟不易太子者, 留侯本招此四人之力也.) (정법진의 옮김, 《史記世家》下, 까치, 1994, 566-567쪽) ○ 將: 이끈다.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에서는 '-와'로 보고 '장양과 상산사호는'이라고 번역하였다. ○ 綺季: 商山四皓의 한 명인 邯鄲公 즉 綺里季를 말한다. '綺季'로써 商山四皓를 대변하였다. 留侯인 張良으로 韋子春, 商山四皓인 綺里季로써 자신을 비유하였다.

- 20) 춘추시대 范蠡가 越王 句踐을 도와서 뜻을 멸망시킨 뒤에 은거한 일을 전고로 사용하였다. 《國語·越語》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句踐이 뜻을 멸망시키고) 五湖로 되돌아 올 때, 范蠡가 왕에게 이별을 고하며 말했다. '군왕께서는 치국에 힘쓰십시오, 신은 다시 월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월왕이 물었다. '나는 그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소.' 범려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바는 신하된 자는 군왕이 걱정할 때는 신하가 군왕을 위하여 수고해줘야 하고, 군왕이 모욕을 받으면 신하는 군왕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과거에 군왕이 습궁에서 포위당하여 방어하다가 참패하는 치욕을 겪었을 때, 제가 죽지 않았던 것은 복수를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복수를 했으니, 회계에 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월왕이 말했다. '만약 그대의 과실을 양해하지 않고, 그대의 미덕을 찬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越나라에서 좋은 죽음을 맞도록 하지 않겠소. 그대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國政 일부를 그대에게 관리하도록 주겠소.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처자도 함께 죽을 것이요.' 范蠡가 대답하기를 '제가 명령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군왕께서는 군왕의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저는 군왕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五湖를 떠났는데 그의 최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反至五湖, 范蠡辭於王曰: '君王勉之, 臣不復入越國矣.' 王曰: '不穀疑子之所謂者何也?' 對曰: '臣聞之, 爲人臣者, 君憂臣勞, 君辱臣死. 昔者君王辱於會稽, 臣所以不死者, 爲此事也. 今事已濟矣, 蠡請從會稽之罰.' 王曰: '所不掩子之惡, 揚子之美者, 使其身無終沒於越也. 子聽吾言, 與子分國. 不聽吾言, 身死, 妻子爲戮.' 范蠡對曰: '臣聞命矣. 君行制, 臣行意.' 遂乘輕舟以浮於五湖, 莫知其所終極.)"

21)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22)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데, “徒爲風塵苦” 이전이 1수, 이하가 1수로 되어 있다. 咸本<sup>25)</sup> · 王本<sup>26)</sup>은 전체가 1수로 되어 있다.

제4구의 ‘藉藉’가 蕭本 · 郭本 · 王本 모두 ‘籍籍’으로 되어 있다.

제5구의 ‘其’가 咸本 · 蕭本 · 玉本 · 郭本 · 劉本<sup>27)</sup> · 嚴評本<sup>28)</sup> · 全唐詩本<sup>29)</sup> · 胡本<sup>30)</sup> · 玉本是 모두 ‘斯’로 되어 있는데, ‘斯’로 되는 것이 옳다.

제6구 ‘臥’가 郭本에는 ‘掛’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제19구의 ‘池’가 咸本 · 蕭本 · 元刊二十六卷本<sup>31)</sup> · 郭本 · 劉本 · 朱本 · 嚴評本 · 全唐詩本 · 王本 모두에는 ‘地’로 되어 있다. ‘地’로 되는 것이 옳다. 朱本은 ‘樵漁池’로 되어 있다.

제24구의 ‘鬚’는 咸本 · 蕭本 · 郭本 · 朱本 모두 ‘鬚’로 되어 있고 劉本 · 王本 모두 ‘髮’로 되어 있다. 劉本の 注에서는 “만약 白髮로 된다면, 위와 연결되어야 하고, 아래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如作白髮, 應連上不應屬下)”라고 하였다.

제29구의 ‘季’가 咸本에는 ‘李’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蕭本 · 玉本 · 郭本 · 朱本 · 嚴評本 · 全唐詩本 · 王本 모두 ‘里’로 되어 있다.

### < 詳釋 >

漢代의 정곡현에 정자진이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서 은거하며 농사짓고 살았다.

그의 높은 명성은 도성을 진동시켰고, 천하에서 모두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는 초빙을 받았지만 굳게 사양하고 끝내 나오지 않고, 雲林 속에

23)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24)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諫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25) 明 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26)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27) 明 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28) 明 崇禎3年(서기 1630년)에 嚴滄浪과 劉會孟이 評點한 《李杜全集》 중 《李太白集》 22권.

29)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30) 清 順治7年(서기 1650년) 胡震亨의 《合刻李杜詩通》 중 《李詩通》 21卷.

31)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누워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랐다.

그러나 세상을 구제할 마음이 없다면, 홀로 자신만을 수양한들 무슨 좋은 점이 있겠는가?

그대 가문의 몇 선대들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고서도 출사하지 않고 은거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대의 지식은 심오하고도 넓어서 하늘의 이치를 담론하면 정말로 광대무변하고, 무예를 말하면 중횡무진이다.

동진의 사안은 부질없이 東山에서 은거하지 않았던 것이니, 결국에는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 산에서 나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쓸쓸한 한직이나 말아야 했는가? 그대 같은 영웅호걸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한직을 맡다 다시 푸른 산으로 돌아와 은거하니, 어찌 더 이상 궁궐을 연연했겠는가?

옛 집은 나무를 하고 고기를 잡았던 곳인데,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서 축대가 벌써 뒤덮었다.

여계봉의 풍경을 돌아보고서도 궁궐을 그리워하여 돌아가지 않았다면, 무슨 낮으로 옛 산의 구름과 달을 볼 수 있겠는가?

그동안 부질없이 세속풍진에 고달프게 살았고, 미관말직 한 번에 이미 백발이 되었다.

그대와 나는 의기가 서로 통하여 설사 만 리나 떨어져 있더라도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그대가 나를 방문하여 여산에 왔었다.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구름 헤치고 푸른 하늘 보는듯한 깨달음을 느끼며,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훌륭한 계획들을 말하였다.

장양이 은거하고 있던 상산사호를 이끌어 산에서 나오게 하였는데, 출사하고 은거한 목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의 목적은 국가사직을 안정시키려는데 있었으니, 그들은 공을 이루고서는 돌아가 五湖를 떠돌았다.

## &lt;解說&gt;

이 시는 肅宗 至德 元年(756년) 12월에 지었다. 韋子春은 秘書省 著作郎으로 碑誌, 祝文, 祭文 등을 짓고, 문서를 관리하였다. 天寶8년(749년) 여름 4월에 李林甫의 모함을 받아 端溪縣의 尉로 폄적되었다가 관직을 사임하고 은거하였다. 安史의 亂(755년~763년)에 韋子春은 薛鏐·李台卿·劉巨鱗·蔡駟과 더불어 永王 李璘의 참모가 되었다. 당시 韋子春은 명을 받들어 廬山에 와서 이백에게 영왕 막부에 들것을 청하였다. 이 시는 이 일을 창작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는 4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 단락은 제1구부터 제8구까지로 漢의 鄭子眞이 谷口에 은거하면서 “獨善其身”에만 뜻을 두어서 불려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면서, “세상 구제할 마음이 없다면 홀로 자신을 수양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의 사상을 부각시켰다. 시인의 “兼善天下”의 의지를 암암리에 읽을 수 있다. 둘째 단락은 제9구에서 제16구까지로 韋子春의 家世 및 그의 재능과 관직을 서술하였다. 또한 재능에 걸맞지 않는 한직에서 그 기개를 펼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위자춘이 謝安처럼 단지 은거만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단락은 제17구에서 제24구까지로 위자춘이 궁궐에 연연해하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단락은 제25구에서 제32구까지로 위자춘이 廬山에 이백을 방문 와서 서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훌륭한 계획들을 논하고 이백에게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산을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묘사하였다. 특히 張良으로 위자춘을, 商山四皓의 한명인 綺里季로 자신을 비유하여, 출사하여 사직을 안정시키고 공을 이루고서 江湖로 은거하겠다는 염원을 드러내었다.

이 시는 특히 전고운용에서 특색을 보인다. 각 단락마다 전고의 묘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작품의 취지를 드러내었다.

2.2 제18수 시어사 위황상에게 드림 2수(贈韋侍御黃裳二首)<sup>32)</sup>

〔其一〕

〔제1수〕

太華生長松, <sup>33)</sup>	태화산에 자라 있는 장송
亭亭凌霜雪. <sup>34)</sup>	우뚝 솟아 서리와 눈을 건디네.
天與百尺高, <sup>35)</sup>	하늘이 백 자의 높이 내렸으니
豈爲微颺折! <sup>36)</sup>	어찌 작은 폭풍엘랑 꺾일소나!
桃李賣陽豔, <sup>37)</sup>	桃李는 아름다운 자태 뽐내고,

- 32) 韋侍御黃裳: 監察御史 韋黃裳을 이름. 京兆(역주: 지금의 西安市) 지역 世族인 韋氏의 후예이다. 《元和姓纂》 권2 <韋氏逍遙公房>에서 “과우는 璋과 珍을 낳았다. 璋은 호주자사를 지냈다. 손자 황상은 승주자사 겸 증승채방사를 겸하였다(寡尤生璋、珍. 璋, 湖州刺史. 孫黃裳, 昇州刺史兼中丞采訪使)”라고 하였다. 《因話錄》 권5에서 “어사대에는 삼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대원이라고 하며, 그 관료를 시어사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단공이라고 불렀다.……두 번째는 전원이라고 하며, 그 관료를 진중시어사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시어라고 불렀다.……세 번째는 찰원이라고 하며, 그 관료를 감찰어사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또한 시어라고 불렀다(御史臺三院, 一曰臺院, 其僚曰侍御史, 衆呼爲端公.……二曰殿院, 其僚曰殿中侍御史, 衆呼爲侍御.……三曰察院, 其僚曰監察御史, 衆呼亦曰侍御)”라고 하였다. 《新唐書·百官志》 3에 다음과 같이 감찰어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감찰어사 15인, 정8품하이다. 각각 백료를 감찰하고, 주와 현을 돌아다니며 시찰하는 일을 관장하며, 소승, 군사, 제사, 건축, 태부의 출납이 모두 이곳에서 관리되었다.(監察御史十五人, 正八品下. 掌分察百寮, 巡按州縣, 獄訟, 軍戎, 祭祀, 營作, 太府出納皆蒞焉.)”
- 33) 太華: 五嶽의 하나인 西嶽인 華山을 말한다. 지금의 陝西省 渭南市에 속해 있는 華陰市에 있다. 西安과 洛陽 사이에 우뚝 솟은 산이다. 《元和郡縣志》 권2 <關內道華州華陰縣>에 “태화산은 현의 남쪽 8리에 있다(太華山, 在縣南八里)”라고 하였다. 楊齊賢은 “화주의 화산은 일명 태화라고 한다(華州華山, 一名太華)”라고 주석을 달았다.
- 34) 亭亭: 우뚝 솟은 모양. 《文選》 권23 劉楨의 <贈從弟> “우뚝 솟은 산 위의 소나무, 생생 부는 골짜기의 바람. 바람 소리 아주 세차고, 소나무 가지는 아주 튼튼하네. 얼음과 서리로 지금 차가와도, 일년내내 늘 올바르네. 어찌 얼고 추운 걸 만나지 않겠는가? 송백은 원래 건디는 본성이 있다네(亭亭山上松, 瑟瑟谷中風. 風聲一何盛, 松枝一何勁. 冰霜正慘愴, 終歲常端正. 豈不罹凝寒, 松柏有本性)”에 그 용례가 있는데, 呂向이 “亭亭은 높은 모양이다(亭亭, 高貌)”라고 주석을 달았다.
- 35) 百尺高: 백 자의 높이.尺은 자이다. 한나라 때는 23.1cm에 해당되며, 지금은 33.3cm에 해당되는 길이이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文選》 권34 枚乘 <七發>의 “용문산의 오동나무, 높이가 100 자에 이르지만 가지가 없네(龍門之桐, 高百尺而無枝)”에 그 용례가 보이는데, 李善이 “(노련자 [역주: 魯仲連의 존칭임]가 말하기를 ‘동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지만 가지가 없다’라고 했다(魯連子曰: 東方有松樅, 高千仞而無枝也)”라는 주석을 달았다.
- 36) 颺(飜): 폭풍. 광풍.
- 37) “桃李賣陽豔”句: 鮑照 <學劉公幹體>의 “봄은 桃李가 뽐내는 계절, 하얀 눈은 아리따움을

路人行且迷。	행인은 가다가 잠시 매료당하지만
春光掃地盡。	봄빛이 땅을 쓸며 지나갈 때,
碧葉成黃泥。	푸른 잎은 누런 진흙이 되리라.
願君學長松。	그대 장송 배우기를 바라니
慎勿作桃李。 <sup>38)</sup>	제발 도리가 되지 마시오.
受屈不改心。	고난을 당해도 마음 바꾸지 않아야
然後知君子。 <sup>39)</sup>	그 연후에 진정한 군자임을 알리라.

## &lt;校記&gt;

제목의 ‘韋’는 劉本에서 “다른 판본에서는 章으로 되어 있다(一作章)”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3구의 ‘與’가 英華<sup>40)</sup>에는 ‘賜’로 되어 있다.

제3구의 ‘尺’이 원래 송축본에서는 ‘人’으로 되어 있고, 咸本·蕭本·玉本·郭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英華에는 ‘尺’으로 되어 있으며, 繆本<sup>41)</sup>에서는 고쳐서 ‘尺’으로 되어 있다. 詹鐸이 ‘尺’으로 고쳤다.

제5구의 ‘搖’가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

보이지 못하네(豔陽桃李節，皎潔不成妍)”에 그 용례가 있다. 詹鐸은 桃李는 小人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38) 慎: 부디. 제발.

39) “受屈不改心，然後知君子。”二句: 郁賢皓의 《李白叢考·李白交遊雜考》에 “《舊唐書·王鉞傳》에 (천보) 9년 5월, 경조윤을 겸임하였는데, 使의 직책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王鉞의 위세와 권세가 성대하게 변하였고, 20여개의 使를 겸직하였다. ……비록 晉公 이임보라 해도 역시 그를 두려워하여 피하였다. 이임보의 아들 岫는 장작같이 되어 궁중에 기예를 보았다. 王鉞의 아들 準은 衛尉少卿으로서 투계로 또한 기예를 보였고, 매번 岫를 희롱하였는데 岫는 항상 내버려 두었다. 萬年尉인 韋黃裳과 長安尉인 賈季鄰는 관청 대청에 돈 수백 폐미를 쌓아놓고, 이름 있는 거니, 맛있는 음식을 늘 준비하여, 準이 쓰도록 대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천보 9년 때 韋黃裳은 萬年縣에서 尉 관직에 있었으며, 그 사람됨이 남에게 비굴하게 알랑거리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이백이 ‘그대 장송 배우기를 바라니, ……그 연후에 진정한 군자임을 알리라’ 라고 한 것이 확실히 간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舊唐書·王鉞傳》: “天寶九載五月, 兼京兆尹, 使並如故. 鉞威權轉盛, 兼二十餘使. ……雖晉公林甫亦畏避之. 林甫子岫爲將作監, 供奉禁中; 鉞子準衛尉少卿, 亦鬪雞供奉, 每謔岫, 岫常下之. 萬年尉韋黃裳, 長安尉賈季鄰常於廳事貯錢數百緡, 名倡珍饌, 常有備擬, 以候準所適.”由此知天寶九載時韋黃裳爲萬年尉, 其爲人奴顏媚骨, 諂媚權貴. 李白詩云: “願君學長松, ……然後知君子. 顯然含有規勸之意.”)라고 하였다.

40)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41)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王本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제7구의 ‘掃’가 英華에는 ‘拂’로 되어 있는데, 注에서 “李太白全集에는 掃로 되어 있다(集作掃)”라고 하고 있다. 胡本에서는 “다른 판본에서는 拂로 되어 있다(一作拂)”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8구의 ‘葉’이 英華에는 ‘蕊’로 되어 있는데, 注에서 “李太白全集에는 葉으로 되어 있다(集作葉)”라고 하고 있다.

### <詳釋>

장안 근처에 있는 태화산에서 자라고 있는 장송은 우뚝 솟아 땅에 쌓인 서리와 눈을 건디어 낸다.

하늘은 장송에게 백 자에 달하는 높이를 내렸으니, 작은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다.

복숭아꽃과 오얏꽃은 봄이 되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것을 보고 매료당해 걸음을 멈추지만, 시간이 흘러 봄이 땅을 쓸 듯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복숭아꽃과 오얏꽃의 푸른 잎은 땅에 떨어져 누런 진흙으로 변하게 된다.

위 시어사 그대는 서리와 눈에도 끄떡없는 크고 우뚝 솟은 장송을 본받기를 바라고, 제발 봄에만 자신을 뽐낼 수밖에 없는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간직해야 만이 진정한 군자임을 알 수 있다.

### <解說>

이 시는 5언고시로 전체적으로 정치성이 아주 강하며, 풍자 역시 신랄하다. 첫째 수는 韋黃裳이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며 비유를 맞추는 행위를 비유를 들어 간언하고 있으며, 둘째 수는 시어사라는 직책이 힘든 일이니 몸 건사하기를 바라며 청렴하게 관직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첫째 수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큰 소나무가 서리와 눈을 견디어내고 바람에도 꺾이지 않음을 칭찬하였다. 큰 소나무로 절개 있는 군자를 비유하고 있다. ‘長’, ‘亭亭’, ‘百尺高’로 큰 소나무를 묘사하며 진정한 군자란 사악한 세력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8구까지로 큰 소나무와 상반된 이미지로 桃李를 묘사하고 있다. 桃李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푸른 잎이 땅에 떨어져 누런 진흙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桃李로써 권력자에게 빌붙어 아부하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제9구에서 제12구까지로 시인이 위황상에게 간언하며 그가 큰 소나무의 품격을 배워 도리가 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는 진정한 군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는 한편으로 위황상에게 간언하고 있지만, 위황상을 위시한 당 현종 밑의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 2.3 제19수 시어사 위황상에게 드림 2수(贈韋侍御黃裳二首)

〔其二〕

〔제2수〕

見君乘驄馬,<sup>42)</sup>

그대 총이말 탄 걸 보니

知上太山道.

태행산 길 나서는 걸 알겠네.

此地果推輪,<sup>43)</sup>

이 땅은 정말로 수레바퀴 부수어지니

42) 驄馬: 총이말. 흰 바탕에 푸른 빛깔이 섞인 말. 《後漢書》 권37 <桓榮丁鴻列傳·桓榮傳附桓典傳>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시어사로 삼았다. 이 때는 환관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정무를 주관하고 집행함에 피하는 바가 없었다. 항상 총이말을 타고 다녔는데, 도성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꺼려하여, 그런 이유로 ‘가다가 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총이말 어사를 피해라’라고 하였다(舉高第, 拜侍御史, 是時宦官秉權, 典執政無所回避, 常乘驄馬, 京師畏憚, 爲之語曰: ‘行行且止, 避驄馬御史’)”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세에 乘驄이라는 말은 御史臺官員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說文解字》에서는 “驄은 말에 있는 청색과 백색이 섞인 털이다(驄, 馬青白雜毛也)”라고 하였다.

43) “知上太山道. 此地果推輪”二句: ○ 太山: 太行山을 말함. 五行山, 王母山, 女媧山이라고도

全身以爲寶, 44)	몸 건사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시오.
我如豐年玉, 45)	풍년의 옥과 같은 난
棄置秋田草,	가을건이 끝난 밭의 풀처럼 버려졌소.
但扇冰壺心,	다만 향아리 속 얼음 같은 마음 갖길 권면하니
無爲歎衰老, 46)	쇠하고 늙음을 탄식말기를.

## &lt;校記&gt;

제2구의 '山'이 劉本에는 '行'으로 되어 있는데, "太行은 다른 판본에서는 太山으로 되어 있다(太行一作太山)"라고 주석을 달았다. 英華와 王本 역시 '行'으로 되어 있다. 王本에서는 "옛날 판본에서는 모두 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文苑英華의 교감에 의거해 行으로 하였다(舊本皆作山, 今依文苑英華校作行)"라고 주석을 달았다. 詹鐸과 郁賢皓는 '行'이 옳다고 하였다.

## &lt;詳釋&gt;

위 시어사 그대가 흰 바탕에 푸른 빛깔이 섞인 총이말 타고 있는 걸 보니 태행산을 넘어 가는 길 나섬을 알겠다.

태행산은 우뚝 솟아있고 넘어가는 길은 험하고 비탈길은 양장같이 구불구불하여 수레바퀴가 부수어지니, 몸을 잘 건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을 꼭 보배처럼 여기기를 바란다.

하며, 山西省, 河北省, 河南省에 걸쳐져 있다. 郁賢皓는 이 때는 위황상이 태행산을 넘어 并州(역주: 지금의 山西省 太原市)로 가서 郡縣을 감찰하려고 했던 시기라고 하였다. 《文選》 권27 曹操 <苦寒行>의 "북쪽으로 태행산을 오르려 하니, 길은 험하고 산은 어찌나 우뚝 솟았는지! 양장 같은 비탈길 구불구불하여, 수레바퀴는 부수어졌네(北上太行山, 艱哉何巍巍! 羊腸坂詰屈, 車輪爲之摧)"에 그 용례가 있다.

44) 全身: 몸을 건사하다. 《詩經·王風·君子陽陽》의 序에서 "군자가 난을 당하고 요청을 받아 녹봉을 위해 벼슬을 한 것은 몸을 건사하고 해를 멀리하려고 했을 뿐이다(君子遭亂, 相招爲祿仕, 全身遠害而已)"라고 하였다.

45) 豐年玉: 풍년의 옥. 인품이 고결함을 형용하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릴만한 재능이 있는 인재를 비유함. 《世說新語·賞譽》에서 "세상 사람들은 유문강을 풍년옥이라고 불렀다(世稱庾文康爲豐年玉)"라고 하였다. 劉孝標가 여기에 "亮(역주: 유문강)이 조정의 중임을 도맡을 그릇임을 일컫는 것이다(謂亮有廊廟之器)"라고 주석을 달았다.

46) "但扇冰壺心, 無爲歎衰老."二句: 《文選》 권28 鮑照 <白頭吟>의 "곧기는 거문고의 붉은 줄이요, 맑기는 옥 향아리의 얼음이네(直如朱絲繩, 清如玉壺冰)"에 그 용례가 있다. 詹鐸은 이 두 구가 스스로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無爲: 하지 말라.

나는 유문강 처럼 재능을 가진 풍년의 옥이건만 지금은 가을걷이 끝난 밭의 풀처럼 버려져 있다.

나는 그대가 항아리 속 얼음 같은 청렴한 마음 간직하기를 권면하니, 지금 쇠약하고 늙었다고 탄식말기를 바란다.

### <解説>

둘째 수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위 황상이 태행산을 건너가는 힘든 여정을 묘사하며 그가 몸 성히 가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8구까지로 시인이 자신의 회재불우를 탄식하고, 벗이 청렴하게 관직생활을 하기를 권면하며,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있다.

《繫年》에서는 이 시를 天寶 9년(750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舊唐書·王鉞傳》에 의하면, 위 황상은 천보 9년(역주: 750년)경에 만년현의 위가 되었다. 그리고 《舊唐書·肅宗紀》에 의하면 건원 원년(역주: 758년) 12월 ‘갑신일에 승주자사 위 황상이 소주자사, 절서절도사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황상의 이름과 지위가 여기에 약간 보인다. 이 시가 지어진 것은 마땅히 천보 9년 이후이다. 제2수에서 말한 ‘풍년의 옥과 같은 난, 가을걷이 끝난 밭의 풀처럼 버려졌소’로부터 참소당한 이후에 지어진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據《舊唐書·王鉞傳》，韋黃裳於天寶九載頃爲萬年尉。又《舊唐書·肅宗紀》：乾元元年十二月‘甲辰，以昇州刺史韋黃裳爲蘇州刺史、浙西節度使。黃裳之名位略見於此。此詩之作當在天寶九載以後。第二首云：‘我如豐年玉，棄置秋田草。’亦可見爲遭讒以後所作。)”

嚴評本에서는 첫 수에 대하여 “시를 쓴 동기가 옛스럽다(用意近古)”라고 하였고, 둘째 수에 대하여는 “타인과 자신을 두루 품고, 몸과 마음을 귀중히 하는데 힘써라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심후하다(懷通彼己，寶身勗心，用意深厚)”라고 하였다. 嚴評本에 실려 있는 明人의 批語에서 첫 번째 4구에 대하여 “이것은 세세하게 견주어 헤아리고 있는데, 이처럼 명료하게 말하니 맛이 줄어들음을 느



긴다(此細較量, 如此明白說, 便覺味減)”라고 하였고, “桃李賣陽豔”句에 대해서는 “賣자는 너무 수월하고 표일하다(賣字太輕俊)”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끝 4구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말이 탄복할 만하다. 이태백은 진정으로 덕을 지닌 군자처럼 그를 아끼니, 이태백을 단지 호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贈言可佩, 公眞是愛之以德之君子, 勿徒謂太白爲豪邁人也)”라고 하였다. 《唐宋詩醇》 권5 “옛 이치로써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친구사이에 서로 격려하는 정을 돈독히 하였다. ‘그대 청솔의 마음 지닐 지어니 서리와 눈 같은 마음 간직하도록 힘쓰세’의 뜻으로, 오언이 이와 같으니, 불후할 수 있다(古道照人, 得朋友交勉之誼, 勗君青松心, 努力保霜雪, 五言如此, 可以不朽)”라고 하였다. 일본의 近藤元粹의 《李太白詩醇》 권2에 “桃李’구는 鮑照의 ‘豔陽桃花節’에서 연유된 것이나, 이보다 참신함이 넘친다(桃李句源於鮑照豔陽桃花節, 而奇警過此)”라고 하였다.

#### 2.4 제20수 교서랑 설씨에게 드림(贈薛校書)<sup>47)</sup>

我有吳趨曲, <sup>48)</sup>	내가 지은 오추곡
無人知此音.	이 곡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姑蘇成蔓草,	고소대에는 덩굴만 무성하고
麋鹿空悲吟. <sup>49)</sup>	사슴은 부질없이 슬피 우네.

47) 薛校書: 성이薛씨인 校書郎으로, 이름은 미상이다. 校書郎은 서적을 교정하고 관리하는 직책이다. 《新唐書·百官志二》에 근거하면, 弘文館, 集賢殿, 秘書省, 崇文館 등에 설치되어 있던 관직으로 九品에 해당되었다.

48) 吳趨曲: 오 땅의 노래. 西晉 崔豹의 《古今注》 권중에 “<吳趨曲>은 오 땅 사람이 자기 땅을 노래한 것이다(<吳趨曲>, 吳人以歌其地也)”라고 하였다. 《文選》 권28 陸機 <吳趨行>의 “사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귀 기울이며, 내가 오추곡을 노래하는 것을 들네(四坐並清聽, 聽我歌吳趨)”에 그 용례가 있다. 劉良이 “趨는 걷다 이다. 이 곡은 오 땅 사람이 자기 땅의 풍속을 노래한 것이다(趨, 步也, 此曲吳人歌其土風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백이 지은 吳趨曲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49) “姑蘇成蔓草, 麋鹿空悲吟.”二句: 郁賢皓는 이 두 구가 이백이 지은 吳趨曲의 일부 내용으로 보고 있다.(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三民書局, 2011년, 447쪽) 이 두 구는 《漢書·伍被傳》에 “伍被는 초 땅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의 조상들은 오자서의 후손이라고 한

未誇觀濤作, 50)	파도 보고 지은 뛰어난 작품 써내지도 못하고
空鬱釣鼇心, 51)	헛되이 자라 낚는 원대한 포부만 가졌네.
舉手謝東海, 52)	손들어 조정과 이별하고

다. ……이전에 오자서가 오왕에게 간언을 하였는데, 오왕이 받아들이지 않자, '신은 오늘 사슴들이 고소대에서 노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伍被, 楚人也。或言其先伍子胥後也。……昔子胥諫吳王, 吳王不用, 乃曰: '臣今見麋鹿游姑蘇之臺也。'라는 전고가 있으며, 《吳越春秋》 권5 <夫差內傳>에서 伍子胥가 吳王에게 자결을 명령받았을 때 한 말인 '내가 오늘 죽으면, 오나라 궁전은 폐허가 될 것이고, 뜰에는 덩굴이 자랄 것이다(吾今日死, 吳宮爲墟, 庭生蔓草)'에도 그 전고가 있다. ○ 姑蘇: 姑蘇臺를 가리키는데, 吳王 夫差의 行宮이다. 姑胥臺라고도 하며, 지금 江蘇省 蘇州市 서남쪽의 姑蘇山에 위치해 있다. 顏師古는 姑蘇臺에 대해 《吳地記》에서 '산으로 인해 이름이 지어졌다. 서남쪽으로 오 땅과 35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다(《吳地記》云, 因山爲名, 西南去國三十五里)라는 주석을 달았다.

- 50) 觀濤作: 파도를 보며 지은 작품. 직접적으로는 枚乘의 <七發>을 가리키지만, 아주 뛰어난 작품을 의미한다.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시집(3)》, 학교방, 2015년, 70쪽 참고) 《文選》 권34 枚乘 <七發>의 "장차 8월 15일에 제후와 멀리서 온 친구, 형제들과 더불어 광릉의 곡강으로 파도를 구경하러 갈 것이오(將以八月之望, 與諸侯遠方交遊兄弟, 並往觀濤乎廣陵之曲江)"에 그 전고가 있다. 李善이 "《漢書》에 광릉지역은 오 땅에 속한다 라고 했다(《漢書》, 廣陵國, 屬吳也)"라는 주석을 달았다.
- 51) 釣鼇心: 직역하면 자라 낚는 마음이지만, 여기에서는 원대한 포부를 비유한다. 《列子·湯問》에 "발해의 동쪽으로 몇 억만 리가 되는지 모르는 곳에 거대한 골짜기가 있다. ……크 허라고 부르는 곳에, 팔굉 구야의 물과 은하수가 흐르는데,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다. 그 가운데에 산이 다섯 개 있다. 첫 번째는 岱輿, 두 번째는 員嶠, 세 번째는 方壺, 네 번째는 瀛洲, 다섯 번째는 蓬萊이다. ……그러나 다섯 산의 뿌리는 바다 밑과 이어져 있지 않아, 늘 물결을 따라 계속하여 오르락내리락하여,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를 않았다. 신선들은 이것을 괴롭게 생각해, 상제에게 이러한 고충을 하소연하였다. 상제는 다섯 개의 산이 서쪽 끝으로 흘러 가 신선들이 사는 곳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우강에게 명하여 거대한 자라 15마리에게 머리를 들고 그 산들을 받치게 했다. ……용백의 나라에 거인이 있어, 발을 들어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았는데 다섯 산에 이르렀고, 낚시 한 번에 자라 여섯 마리를 낚아 모두 지고 자기 나라로 일렬 돌아가 그 자라의 뼈를 구워 점을 쳤다. 그래서 岱輿와 員嶠 두 산은 북쪽 끝까지 떠내려 가 큰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신선 가운데 거처를 옮긴 신선이 수억이나 되었다(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名曰歸墟, 八紘九野之水, 天漢之流, 莫不注之, 而無增無減. 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而五山之根無所連著, 常隨波上下往還, 不得暫時焉. 仙聖毒之, 訴之於帝. 帝恐流於西極, 失羣聖之居, 乃命禹強, 使巨鼇十五舉首而戴之. ……而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 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鼇, 合負而趣歸其國, 灼其骨以數焉. 於是岱輿, 員嶠二山流於北極, 沉於大海, 仙聖之播遷者巨億計)"라는 전고가 있다. 安旗는 "후에는 결국 釣鼇로 원대한 포부 혹은 호매한 행위를 비유하였다. 宋 趙令時的 <侯鯖錄> 6에서 '이백은 개원 때 재상을 알현하려고, 명패를 밀봉하고 나서, 그 위에 「해상의 자라 낚는 객 이백」 이라고 썼다'라고 하였다. 이 구는 가슴 가운데 큰 뜻을 품었지만 실현할 길이 없어서, 마음이 울적함을 말한 것이다(後遂以釣鼇喻遠大抱負或豪邁之舉. 宋趙令時<侯鯖錄>六: '李白開元中謁宰相, 封一板, 上題曰: 「海上釣鼇客李白」' 句謂胸中大志無從實現, 故而心情抑鬱)"라는 주석을 달았다.
- 52) "舉手謝東海"句: 謝는 '이별하다'의 뜻이며, 東海는 《列子·湯問》에 나오는 자라가 있는

虛行歸故林.<sup>53)</sup>

공연히 왔다가 다시 옛 숲으로 돌아가네.

## &lt;校記&gt;

제1구의 '趨'가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全唐詩本·王本에는 '越'로 되어 있다. 郁賢皓는 '越'이 틀린 것으로 보았지만, 詹福瑞는 '趨'가 틀린 것으로 보았다.

## &lt;詳釋&gt;

내가 이전에 지은 오 땅을 노래한 오추곡, 지금은 이 곡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왕 夫差의 행궁인 姑蘇臺에는 덩굴만 무성하고 고라니와 사슴들만 여기에서 부질없이 슬피 울고 있다는 곡이었다.

枚乘이 파도를 보고 지은 <七發>같은 뛰어난 작품을 써내지도 못하고 용백 나라의 거인이 한꺼번에 여섯 마리 자라를 낚은 것처럼 원대한 포부만 가졌다.

이젠 손을 들어 거인이 동해를 떠나는 것처럼 나도 조정을 떠나 아무런 뜻도 펴지 못하고 공연히 온 것이 되어 다시 이전에 살던 숲으로 돌아간다.

## &lt;解說&gt;

이 시는 五言古詩로 《繫年》에서는 시의 내용으로 봐서 翰林供奉으로 있다가 참소 당한 이후에 지은 시라고 보며, 天寶3년(744년)에 지었다고 하고 있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락은 제1구부터 제4구까지로 '고소대에는 덩굴만 무성하고, 사슴은 부질없이 슬피 우네'와 같은 吳趨曲을 지었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6구까지로 자신은 枚乘처럼 뛰어난 작품도 써내지 못하고 헛되이 원대한 포부

곳으로, 조정을 비유한다.(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447쪽)

53) 虛行: 아무런 수확 없이 공연히 왔다 갔다 함.

만 가졌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제7구에서 제8구까지로 이제는 조정과 이별하고 아무런 성취 없이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嚴評本에서는 明人の “이 시는 이백이 추측하여 말한 것으로, 이태백이 월 땅에 갔을 때 설 교서랑에게 이별하며 기념으로 남긴 시이다. ‘蔓草’와 ‘麋鹿’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니 그리 명쾌하지 못하다(此篇俱白道意想, 是太白去越時留別薛之作. ‘蔓草’、‘麋鹿’不知何指, 殊未醒快)”라는 批語를 실었는데 참고할 만하다.

安旗는 “시에서 ‘我有吳越曲’라고 말한 것은 상편의 <烏棲曲>을 일컫는 것 같다. 위의 시에서는 吳王으로 본보기를 삼아 현종이 향락에 빠져 나라를 그르친 것을 풍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나아가 ‘無人知此音’라고 하였다. 자신의 의도가 조정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된다(詩言‘我有吳越曲者, 似謂上篇<烏棲曲>也. 上詩以吳王爲鑑, 諷玄宗之耽樂誤國, 此則更言‘無人知此音’, 蓋謂其用意不爲朝中人士所喻也)”라고 이 시를 평가하였다.

## 2.5 제21수 판관 하창호에게 드림(贈何七判官昌浩)<sup>54)</sup>

54) 何七: 何昌浩를 말함. 성은 何 이름은 昌浩인데, 형제간에 일곱째이기 때문에 何七이라 하였다. 何昌浩撰 《九流指要》十卷 <唐故鄧州司戶參軍何府君(昌浩)墓志銘並序>의 “일찍이 문장을 짓고 뜻을 극진히 하여 널리 살펴보았다. 《九流指要》10권을 지었는데, 언급한 사항들이 천지조화를 궁구하고, 의리는 은미함을 극진하게 드러내었다.…… 宣歙採訪使 宋若思의 辟署支使가 되었다(早尙屬文, 兼志博覽. 著《九流指要》十卷, 事窮造化, 義盡幽微. ……爲宣歙採訪使宋若斯(思)辟署支使)”에서 알 수 있듯이 何昌浩는 일생에서 단 한차례 宋若思의 幕府에 들어갔다. 그 시기는 宋若思가 至德二年(757년)에 宣歙採訪使가 되었을 때이다. 이 때 李白 또한 宋若思 幕府에 들어갔는데 이로써 하창호와 동료가 되었다. 나중에 이백은 송약사 막부를 떠나 涇溪로 왔다. 얼마 되지 않아 涇溪를 떠나 宿松으로 왔다. 이 시는 이백의 하창호에게 보낸 또 다른 시 <涇溪南藍山下有落星潭可以葡萄餘泊舟上寄何判官昌浩>와 더불어 이백과 하창호와의 관계 및 우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 判官: 《舊唐書·職官志》에 節度使 아래에 “判官二人”이 있다고 하였다. 《新唐書·百官志》에 “節度使·觀察使 모두 判官이 있었는데 書記를 맡았다(節度使, 觀察使皆有判官, 掌書記)”라고 하였다. 당대에 이른바 判官은 대개 節度使의 幕僚를 말하였다.

有時忽惆悵, 55)	어떤 때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노라면
匡坐至夜分, 56)	한밤중까지 홀로 바르게 앉아있だね.
平明空嘯吒, 57)	날이 밝으면 괜스레 큰 소리 지르며
思欲解世紛, 58)	세상 분란 풀고자 하였네.
心隨長風去,	내 마음은 긴 바람 따라 높이 올라가
吹散萬里雲, 59)	하늘 만 리 뜬 구름을 불어 흩뜨리고자 하네.
羞作濟南生,	제남의 복생이 되는 것 부끄러우니
九十誦古文, 60)	아흔까지 옛 문장만 외웠다네.
不然拂劍起,	그리 되지 않고 검을 뽑아 일어나서
沙漠收奇勳, 61)	사막으로 가서 뛰어난 공훈 세우리라.

- 55) 惆悵: 失意하여 슬퍼함. 《楚辭·九辯》의 “슬퍼하며 내심으로 스스로를 가련하게 생각하네(惆悵兮而私自憐)”에 그 용례가 있다.
- 56) 匡坐: 바르게 앉다. 《莊子·讓王》의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濕氣)가 차 올라도, 바르게 앉아서 거문고 타며 노래하네(上漏下濕, 匡坐而弦歌)”에 그 용례가 있다. ○ 夜分: 夜半, 한밤중의 의미. 《後漢書·清河孝王慶傳》의 “매일 아침 능묘를 배알하는 데, 항상 밤중에 의관을 정제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每朝謁陵廟, 常夜分嚴裝, 衣冠待明)”에 그 용례가 있다.
- 57) “平明空嘯吒”句: ○ 平明: 날이 밝으려는 때, 새벽 4시 전후. 《史記·留侯世家》의 “나중 오일 새벽에, 나와 여기에서 만나자(後五日平明, 與我會此)”에 그 용례가 있다. ○ 嘯吒: 큰 소리로 부르짖음.
- 58) 解世紛: 세상의 분란을 해결함. 《戰國策·趙策》의 “魯仲連이 웃으며 말하길, ‘친하의 선비에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남을 위하여 환난을 없애주고 어려움을 풀어주고 분란을 해결해주면서도 취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魯仲連笑曰:‘所貴於天下之士者, 爲人排患釋難解紛亂而無所取也’)”에 그 용례가 있다.
- 59) “心隨長風去, 吹散萬里雲”二句: 이 두 구는 이백의 이상과 포부의 원대함을 묘사한 것이다. 《宋書·宗慤傳》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宗慤의 자는 元幹이고 南陽郡 涅陽縣 사람이다. 그의 숙부는 宗炳으로 자는 少文인데, 학문이 고상하였지만 벼슬하지 않았다. 宗慤이 어렸을 때, 宗炳이 그에게 뜻하는 바를 물었다. 宗慤이 대답하여 말하길, ‘장풍을 타고 만 리의 파도를 가르고자 합니다.’(宗慤字元幹, 南陽涅陽人也. 叔父少文高尚不仕, 慤年少, 問其所志, 慤答曰‘願乘長風破萬里浪.’)”라고 하였다.
- 60) “羞作濟南生, 九十誦古文”二句: 濟南生은 伏生(서기전 260-161년)을 말함. 《漢書·儒林傳》에 의하면, 伏生은 濟南人으로 일찍이 秦나라 博士로 《尚書》에 정통하였다. 漢의 文帝가 《尚書》에 정통한 자를 초빙하고자 했는데, 당시 伏生은 나이가 아흔이 넘어서 갈 수 없었다. 이에 文帝가 晁錯을 그 집에 파견하여 수업을 듣게 하였다. 古文은 古代文字를 말한다.
- 61) “不然拂劍起, 沙漠收奇勳”二句: 복생처럼 옛날 문장이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나가 가서 적을 물리쳐서 공적을 세우겠다는 뜻을 나타냄. ○ 不然: (복생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 拂劍: 검을 뽑다. 즉 武功에 뜻을 둔다는 의미이다. ○ 奇勳: ‘奇勳’으로도 씀, 탁월한 공적. 李白 <送張秀才從軍>의 “웅당 이름을 천고에 남기고, 기린각에 뛰어난 공적을 드러내야지(當令千古後, 麟閣著奇勳)”에 그 용례가 있다. 詹福瑞와 郁賢皓는 이 두 구에 대해서 “검을 뽑아 일어나, 사막에 가서 적을 죽여서 공훈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라고 번역

老死田陌間,	밭두렁에서 늙어 죽으면
何因揚清芬. <sup>62)</sup>	어떻게 명성 드러낼 수 있으랴?
夫子今管樂,	그대는 지금의 관중과 악의로
英才冠三軍. <sup>63)</sup>	뛰어난 재주 삼군에서 으뜸이네.
終與同出處,	끝까지 진퇴를 함께 할지니
豈將沮溺群? <sup>64)</sup>	어찌 장저, 길nick과 함께 하리오?

<校記>

제목에서 咸本은 '昌浩' 두 글자가 제목 아래 작은 글자의 주로 되어 있다. 제2구의 '至'가 朱本에는 '到'로 되어 있다.

제6구("吹散萬裏雲")에서 제10구("沙漠收奇勳")까지에 있어서 詹鐸은 宋의

하였고,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에서는 "차라리 검을 털고 일어나, 사막에서 뛰어난 공훈 거둘지니"라고 번역하였다.

- 62) "老死田陌間"句: '田陌'이 '阡陌'으로 된 경우가 많다. '阡陌'은 논밭의 두렁을 말하는데, 남북으로 난 것을 '阡', 동서로 난 것을 '陌'이라 한다. ○ 清芬: 고결한 명성의 의미. (晉) 陸機 《文賦》의 "선대의 성대한 덕업이 후세에 빛나니, 선인의 고결한 명성을 노래하네(詠世德之駿烈, 誦先人之清芬)"에 그 용례가 있다.
- 63) "夫子今管樂, 英才冠三軍"二句: 春秋시대 管仲(서기전 719-645년)과 戰國시대 樂毅(생존년 미상)로써 何昌浩가 출중한 인재임을 비유하였다. ○ 夫子: 何昌浩에 대한 존칭. ○ 管樂: 管仲과 樂毅를 말함. 管仲은 齊桓公시대의 재상으로 환공을 도와서 패업을 이룬 인물. ○ 樂毅: 戰國時代 燕의 장군으로 中山 靈壽 사람. 자는 永霸. 魏나라 초의 장수 樂羊의 후손으로 현자이면서 전쟁을 좋아했다. 燕의 昭王 때에 위나라에서 연나라로 가서 亞卿이 되었다. 소왕 28년에 上將軍에 올랐다. 趙와 楚·韓·魏·燕 다섯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齊나라를 토벌하여 수도 臨淄를 함락시키고, 5년에 걸쳐 70여 개 성을 함락시켜 이들을 모두 연나라 郡縣에 소속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昌國君에 봉해졌다. 惠王이 즉위하자 제나라 田單의 이간책으로 죽을죄를 덮어쓰게 되어 趙나라로 달아났는데, 조나라는 그를 觀津에 봉하고 望諸君이라 불렀다. 조나라에서 죽었다. ○ 冠三軍: 三軍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음. 《文選》卷四一 李陵《答蘇武書》의 "저의 선대 장군께서는 공적과 책략이 천하를 덮을 듯했고, 의기와 용맹은 삼군 중에 으뜸이었습니다(陵先將軍, 功略蓋天地, 義勇冠三軍)"에 그 용례가 있다.
- 64) "終與同出處, 豈將沮溺群?"二句: 何昌浩와 더불어 진퇴를 함께 하고, 長沮·桀溺과 더불어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出處: 出은 出仕, 處는 은거로 出處는 進退의 의미. ○ 沮溺: 春秋시대의 은자인 長沮·桀溺을 말함. 두 사람은 공자가 주유천하 하면서 정치적 이상을 펼치고자 하는 것을 조롱하였다. 《論語·微子》에 다음 내용이 있다. "長沮와 桀溺이 함께 밭을 가는데, 공자가 지나가다가 子路를 시켜 나무를 묻게 하였다. 장저가 말하기를 '수레 고삐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자, 자료가 '공구이십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노나라의 공구인가?'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하니 '저 사람은 나무를 알 것이오.'라고 하였다. (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 長沮曰: '夫執輿者爲誰?' 子路曰: '爲孔丘.' 曰: '是魯孔丘與?' 曰: '是也.' 曰: '是知津矣.')"

원본에는 글자가 빠져있고, 咸本·繆本에는 이 5구(吹散萬裏雲. 羞作濟南生, 九十誦古文. 不然拂劍起, 沙漠收奇勳.)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보완한다고 하였다.

제11구의 '田'이 蕭本·玉本·郭本·朱本·嚴評本·王本은 모두 '阡'으로 되어 있다. 劉本の 注에서는 “田陌이 阡陌으로 된 곳도 있다(田陌一作阡陌)”라고 하였다.

### <詳釋>

어떤 때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면, 홀로 한밤중까지 바르게 앉아 있다. 날이 밝을 때 괜스레 큰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 질러서, 세상의 분란을 풀고자 마음먹었다.

내 마음은 긴 바람을 따라 높이 올라가, 하늘에 뜬 만 리 구름을 붙어 훌뜨리고자 하였다.

나는 제남의 복생처럼 되는 것 부끄러우니, 그는 90살까지 옛 문장만 외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 검을 뽑아 일어나서, 사막으로 가서 오랑캐들을 무찔러서 뛰어난 공훈 세우고자 한다.

그저 은거하다가 발두령에서 늙어 죽는다면, 무슨 수로 명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대는 지금에 있어서 관중과 악의와 같이 출중한 인물로, 뛰어난 재주 삼군에서 으뜸이다.

나는 그대와 끝까지 진퇴를 함께 할 것이니, 한평생 장저, 걸닉과 같은 부류가 되지는 않겠다.

### <解説>

이 시의 창작연대에 있어서 安旻는 天寶十年(751년)으로 보고, “何昌浩가 이 시기에 幽州의 軍中에 있었는데 이백이 그곳에 가고자 하였다(何判官其時在幽

州軍中, 白欲往焉”라고 하였다. 郁賢皓는 至德二年(757년) 가을로 보았으며, 당시 시인은 何昌浩와 함께 막부에서 동료가 되었다고 하였다. 李白과 何昌浩의 생평 및 관계 등을 고찰하면, 至德二年(757년)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 시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8구까지로 시인 내면의 방황, 고민(“有時忽惆悵”)을 벗어나서 진취적, 적극적인 志向을 추구(“思欲解世紛”)함을 묘사하였다. 시인 내면의 방황, 고민은 안사의 난으로 백성들이 받는 고통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며, 시인은 魯仲連의 고사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제남의 伏生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였다. 魯仲連과 伏生の 고사를 대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지향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9구에서 제16구까지로 시인은 “검을 뽑아 일어나서, 사막으로 가서 뛰어난 공훈 세우리라.”, “밭두렁에서 늙어 죽으면 어떻게 명성 드러낼 수 있으랴?” 등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濟蒼生, 安黎元)”는 포부를 더욱 돌출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시인은 管仲·樂毅로써 하창호를 비유하고 동시에 자신의 포부를 묘사하였다. 이백은 시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管仲·樂毅를 자신의 양모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 두 구 “끝까지 진퇴를 함께 할지니, 어찌 장저·결닉과 함께 하리오?”는 자신이 하창호와 더불어 爲國爲民의 뜻을 함께 하고 결코 장저·결닉과 같은 현실도피의 隱士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다. 끝구를 의문문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한층 더 강렬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3. 결론

이상 5수 작품은 각각 韋子春, 韋黃裳, 薛氏, 何昌浩에게 보낸 시이다. 제17수는 韋子春이 永王 李璘의 참모로 廬山에 와서 시인에게 영왕의 막부에 들 것



을 청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인은 韋子春이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직에서 그 기개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더 이상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은거하였던 상황 등을 서술하였다. 이 시에서 시인은 張良으로 韋子春을, 商山四皓의 한 명인 綺里季로써 자신을 비유하여 '兼善天下'의 포부를 드러내었다. 이 시는 다양한 典故를 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典故를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18, 19수 2수는 韋黃裳에게 쓴 시이다. 제18수는 표면적으로는 위황상을 譎諫, 勸勉하지만 이면에서는 위황상을 위시한 당 현종 밑의 부패한 관료들을 풍자, 비판한 것이다. 작품에서 長松, 霜雪, 桃李 등은 비유적 표현이며 시인의 주관 감정이 농후하게 채색되었다. 이 시는 이백의 '贈詩' 가운데서 시를 주는 대상을 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제19수는 韋黃裳에게 시어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몸 건사와 청렴을 당부하고 있다. 작품에는 자신의 회재불우에 대한 탄식도 드러난다. 이 작품은 시인의 감정이 비교적 담박하며, 예술수법 또한 평이하다.

제20수는 시인이 翰林供奉의 관직을 그만두고 떠나면서 지은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비유, 상징을 통하여 자구이면에 함축시키고 있다. 때문에 비록 작은 편폭이지만 一字一句에서는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무궁한 여운이 감돌고 있다. 작품전체는 회재불우의 탄식이 주된 정조를 이룬다.

제21수는 何昌浩에게 쓴 작품이다. 시인은 작품에서 안사의 난으로 야기된 백성의 고통에 대한 방황과 고민을 초극하여 위국위민의 진취적, 적극적인 志向을 표현함으로써 강한 현실참여의식을 드러내었다. 시인은 자신이 이러한 의식을 과거 역사 속의 魯仲連·伏生, 管仲·樂毅, 長沮·桀溺 등의 인물들을 友人, 시인 자신과 서로 交織시켜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李白의 '贈詩'는 시를 받는 이에 대한 칭송, 현실참여를 통한 '兼善天下'의 포부, 회재불우에 대한 비탄, 사회에 대한 비판, 친구에 대한 권면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이백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뇌와 체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백의 ‘贈詩’는 ‘古風’, ‘登覽’, ‘懷古’ 등의 ‘超脫’, ‘神仙’, ‘謫仙’의 작풍과는 매우 다르다. ‘贈詩’는 李白의 인생 및 예술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韓嬰 著, 許維遙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郁賢皓,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詹福瑞·劉崇德·葛景春 등,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丁放, 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楊曉玲·夏小鳳, <從李白的贈詩看其對人物“風流”的品藻>, 《宜春學院學報》, 2011년 제 7기.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 3》, 서울: 學古房, 2015.

< Abstract >

This study is a set of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in a consecutive order on poem 17 to 21, from the 8th volume ‘Presented Poems(贈詩)’ of Libai(李白)’s 《a collection of Litaibo(李太白)’s works》, which specifically covers 5 poems.

The original text is given for each of the subject poems, which are translated, commented in a consecutive manner. Compare and correct on the given texts, detailed explanations follows.

The 17th poem described that Li Bai feels sorry for Wei Zichun(韋子春) couldn't display his ability in unimportant post and represented a situation that he lived in retirement without clinging to the public office anymore.

The 18th poem remonstrate a behavior that Wei Huangshang(韋黃裳) flatters big dogs by using a figure of speech.

The 19th poem represents that Wei Huangshang encourages to do the public office life disinterestedly hoping to be healthy because the current position is difficult.

The 20th poem laments that he cannot write excellent work and has grand aspiration in vain and goes back to his old residence after realizing nothing.

The 21th poem reveals a strong sense of reality participation by expressing an enterprising and active aim for the sake of the country and people.

While these poems by Li Bai have the praise on people who receive the poem, aspiration of reality participation, and they express an anguish of not meeting the proper time, criticism against the society, and encouragement for his friend.

Key words: Translation, Annotation, Presented Poems, Libai, Compare, Correc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9. 30.	2015. 10. 19.	2015. 10. 28.	2015. 11. 14.	2015. 11. 30.